

신해웅 목사님(일본 기후현 선교) 소식

- 일본에서 폭우가 있었는데, 신 목사님 안부를 걱정하시는 성도님들께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편지 일부를 전합니다.

우선 저희는 안전합니다.

사실 일본에서 지낸 17년동안 이런 집중호우는 처음입니다.

제가 사역하고 있는 미노그레이크교회는 “나가라가와” 라는 제법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.

그런데 이 강이 지난 토요일저녁에 범람위험경보발령이 났고, 피난권고까지 내려져서 사실 좀 걱정했습니다.

저희가 지내는 집은 교회와 조금 떨어진 곳이어서 피난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만약 강이 범람했다면, 교회도 침수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.

지금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곳은 강이 범람한 히로시마지역입니다. 만약 이곳의 강이 범람했다면 그와 같이 피해를 입었을지 모릅니다. 다행인 것은 주일아침에 비가 멈추고 조금씩 강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.

첨부해드린 사진은 비로 강물이 불었을 때 찍었는데, 원래라면 왼쪽에 자갈밭도 있고 평소에는 강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맑은데 지금은 온통 흙탕물이 되어있습니다.



저희 가정은 안전하다는 소식 전해드리며, 저희를 위한 기도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.

< 신해웅 목사님 가정 >



< 신해웅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미노그레이스교회가 있는 곳_기후현 >

